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 하 (문창수·안광현 옮김, 베드로서원)

55장 무의식적 위선

『산상설교』 하권 제55장, 인쇄 341~354쪽 · 설교 본문 마태복음 7:21~23

> ❓ **바른 신앙고백을 하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는데, 그래도 내가 나 자신을 속이고 있을 수 있을까?**

🧭 흐름 한눈에

로이드 존스는 앞 장에서 다룬 마태복음 7:21~23을 다시 붙든다. 이 말씀이 이단이 아니라 정통 신앙을 가진 열심 있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 경고의 핵심을 '자기기만', 곧 남뿐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 속이는 '무의식적 위선'으로 본다. 그리고 이 위험을 피하는 길은 자기기만의 원인을 하나씩 짚고 그 원인에 비추어 자신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원인은 다섯 가지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그릇된 교리, 자기 검토의 거부, 자기 활동으로 사는 보람, 선행으로 양심을 상쇄하는 대차 균형,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뿌리인 실생활에서 성경에 복종하지 않는 태도다. 설교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활동이나 제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순종이라는 결론으로 끝난다.

📜 절별 정리

📜 1. '많은 사람'이 빠지는 자기기만

로이드 존스는 이 본문이 성경의 다른 어떤 가르침보다 엄숙하고 두려운 이유부터 밝힌다. 주님이 거짓 교리를 가진 이단이 아니라 정통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귀신을 쫓아냈다. 그런데도

무게를 과장해서는 안 된다고 단서를 단다. 다만 자기기만이 드문 일이 아니라는 뜻만은 분명하다고 본다. 같은 경고가 바로 뒤의 모래 위에 지은 집 비유, 열 처녀 비유의 어리석은 다섯 처녀, 마태복음 25장 끝의 최후 심판 장면에도 되풀이된다.

1. 경고 대상은 이단이 아니라 정통 신자다
2. 그들은 주님 이름으로 큰일을 했다
3. '많은 사람'이니 흔한 위험이다
4. 같은 경고가 여러 비유에 반복된다

> **마태복음 7:21~23**
>
> 설교 본문. 주여 주여 하며 권능을 행한 자들도 버림받는다
>
> 21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 **마태복음 7:26**
>
>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은 자기기만의 그림이다
>
>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 **마태복음 25:1~13**
>
> 어리석은 다섯 처녀. 자기기만의 실례다
>
> 1 그 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2 그 중의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3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4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5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6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

당당하게 자기 일을 보고하다가 버림받는 심판 장면이다

41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42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43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44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45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46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 2. '그 날'에 드러날 무의식적 위선

로이드 존스는 마태복음 7장 전체가 신자에게 다가올 심판 날에 비추어 살라고 가르친다고 상기시킨다. 신약은 '그 날'이라는 말을 자주 쓴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13을 근거로, 사람들의 비평에 매이지 않고 자신을 심판주께 맡긴 채 자기 일을 계속하는 태도를 보였다. 본문의 사람들은 그 날에 놀란다. 그들은 정통적이고 바른 말을 했으며 열심이 있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았고 뛰어난 주님의 종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자기 안에 결점이 있으리라고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주님은 “나는 너희를 안 적이 없다”고 선고하신다. 사람 사이에 높임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미움받을 수 있다. 이런 거짓 판단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다. 예배 후에 사람들이 메시지가 아니라 설교자의 용모나 '개성'을 논평하는 것이 그 예다. 로이드 존스는 의식적 위선자는 오히려 문제가 덜하다고 본다. 분별하기 어려운 것은 자신까지 속이는 무의식적 위선이다. 그렇다고 손쓸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자기기만의 원인 목록을 만들고 그 원인에 비추어 자신을 검토하면 된다. 그는 자기 검토가 '부정적'이라 인기가 없지만, 신약은 진리의 긍정적인 면과 함께 부정적인 면도 강조하는 '경고의 책'이라고 말한다.

1. 신자는 심판 날에 비추어 살아야 한다

3. 사람의 칭찬과 하나님의 판단은 다르다
4. 무의식적 위선은 자신마저 속인다
5. 원인을 알고 자신을 검토하면 지킬 수 있다

> **고린도전서 3:13**
> 그 날이 각 사람의 공적을 밝힌다. 사람의 평가보다 심판 날을 보며 산다
>
>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 **누가복음 16:15**
> 사람 중에 높임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다. 거짓 판단의 증거다
>
>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 **히브리서 4:13**
> 만물이 그분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설교 후반에 쓰인 표현). 심판주는 속지 않으신다
>
>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매우 분별하기 어려운 것은 무의식적 위선입니다.”

📜 3. 첫째 원인: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그릇된 교리

첫째 원인은 구원의 확신을 자기가 한 어떤 진술 위에 세우려는 경향이다. 어떤 이들은 요한복음 3:16, 사도행전 16:31, 로마서 10:10 같은 구절을 근거로 든다. 그리고 예수에 관한 조항들을 인정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며 바른 말을 했다. 귀신들도 믿고 떨며, 예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바르게 불렀다. 그는 이런 태도를 '믿음주의'(fideism, believism)라고 부른다.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신앙과 자기 신념에 최종 신뢰를 두는 것이다. 그는 이것이 교인 명부, 국적, 유아세례에 확신을 두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본다. 입으로는 바른 말을 하면서 악하게 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양심에 귀 기울이지 말고 믿는다고 말만 하라”는 식의 확신 교리는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짓는다. 거듭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1. 고백은 필요하지만 보증은 아니다
2. 귀신도 예수를 바르게 부른다
3. 믿음주의는 자기 신앙을 신뢰한다
4. 교인·세례 같은 자격 의존과 같다
5. 확신은 새 생명의 증거에 근거한다

> **요한복음 3:16, 18**
> 믿음주의자들이 자동 구원의 근거로 드는 구절이다
>
> **요한복음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
> **요한복음 3:18**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 **사도행전 16:31**
> 같은 용도로 인용된다. 참되지만 기계적으로 읽으면 안 된다
>
>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 **로마서 10:10**
> 입의 시인을 구원 보증으로 오해하는 근거가 된다
>
>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마가복음 1:24

귀신이 예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 부른다. 바른 말을 하는 귀신이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고린도전서 6:9~10

불의한 생활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9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10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 4. 둘째 원인: 자기 검토의 거부

둘째 원인은 첫째에서 저절로 따라 나온다. 바로 자기 검토를 거부하는 것이다. 로이드 존스는 이것이 특히 복음적 그리스도인 사이에 흔하다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다. 그들은 자기를 보면 검은 것밖에 없으니 그리스도만 바라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자기 검토를 거의 죄처럼 여긴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고 명령한다. 이것을 무시하면 '도덕률 폐기론'으로 흐른다. 도덕률 폐기론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어떻게 살든 상관없고, 행동에 집중하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주장이다. 로이드 존스는 기독교가 살아내야 할 삶이라고 답한다. 신자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고, 그 성품은 생활에 반드시 나타난다. 요한일서는 바로 이 위험을 바로잡으려고 쓰였다. 더 나아가 그는 행위뿐 아니라 동기도 검토하라고 한다. 정통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서도 자기 이익과 명예, 자기만족을 위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검토는 고통스럽고 불쾌하지만 안전한 길이다.

3. 거부하면 도덕률 폐기론으로 흐른다
4. 기독교는 생활로 드러나는 삶이다
5. 행위만이 아니라 동기를 물어야 한다

고린도후서 13:5~6

믿음에 있는지, 버림받은 자가 아닌지 스스로 확증하라는 명령이다

5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 받은 자니라 6 우리가 버림 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요한일서 2:4

안다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요한일서 1:6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마태복음 7:22

예언과 축사와 권능도 동기 검토의 대상이다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 5. 셋째·넷째 원인: 활동으로 사는 보람, 선행으로 맞추는 균형

셋째 원인은 자기 활동으로 사는 보람을 느끼는 것이다. 로이드 존스는 이를 그리스도인 삶의 최대 위험 가운데 하나로 본다. 그는 40여 년을 활동적인 사역자로 살다가 중병으로 여섯 달 동안 집 밖에 나가지 못한 부인의 편지를 소개한다. 그 부인은 그 시간이 가혹하고 쓰라린 시련이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지칠 줄 모르던 일꾼들이 병으로 멈추자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다. 자신도 어느 정도 그런 경험이 있다고 고백한다. 너무 바쁘면 자기 영혼을 기르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된다. 그러다 멈추면 삶이 허무해진다. 은퇴한 지 반년 만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성공한 실업가들, 오락과 쾌락이 끊기면 무력해지는 사람들도 같은 원리를 보여 준다. 넷째 원인은 양심이 찔릴 때 선행으로 그것을 상쇄하는 '대차 균형'이다. 전형적인 예가 사울이다. 그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고 아각 왕과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남겼다. 책망을 받자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겼다”고 둘러댔다. 사업에서 이렇게 장부를 맞추면 곧 파산하듯, 신앙에서도 영적으로 파산한다. 그러니 핑계를 대지 말고 양심의 명령을 듣고 따라야 한다.

1. 활동 자체가 삶의 보람이 될 수 있다
2. 멈추면 드러나는 공허가 그 증거다
3. 지나친 바쁨은 자기기만의 길이다
4. 선행으로 양심을 상쇄하면 파산한다
5. 핑계 대지 말고 양심을 따르라

> **사무엘상 15:1~15**
> 사울이 명령을 일부만 지키고 제사를 핑계 댄다. 대차 균형의 전형이다
>
> 1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2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3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4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 보니 보병이 이십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만 명이라 5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6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 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

"지나치게 바쁜 것은 자기기만에 빠지는 길 중의 하나입니다."

📜 6. 뿌리: 실생활에서 성경을 따르지 않음

로이드 존스는 모든 원인 밑바닥에 있는 원칙을 짚는다. 상당히 복음적인 사람들도 교리에서는 성경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실생활에서는 성경 대신 인간의 기준을 쓰며 성경과 다툰다. 그 예가 전도 방법이다. 성경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뿐 아니라 어떻게 전할지도 밝힌다. 사람의 설득력 있는 지혜가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정반대인 방법이 "결과를 보라"는 말로 정당화된다. 그는 이것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았다"며 불순종을 결과로 덮으려 한 사울의 잘못과 같다고 본다. 개신교인들은 로마 가톨릭, 특히 예수회의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논리에 경악한다. 그런데 같은 논리가 복음주의 진영에도 퍼져 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비틀거나 조작하지 말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있는 그대로 복종하라고 권한다.

1. 교리만 성경대로, 삶은 사람 기준
2. 성경은 전도의 방법까지 정한다
3. "결과를 보라"는 성경 위의 권위다
4.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5. 성경과 다투지 말고 복종하라

> **고린도전서 2:1~5**
> 설득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전한다. 방법도 성경이 정한다
>
> 1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2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5]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무엘상 15:15

결과(제사)로 불순종을 정당화한 사울의 논리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 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 7. 주님과의 관계, 내어드린 의지

마지막 원인은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주님은 심판주이시고,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다. “알지 못한다”는 말은 존재를 모른다는 뜻이 아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보신다. 여기서 '안다'는 특별한 관심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고 하신 것과 같은 쓰임이다. 그러니 버림받는 이들은 모든 일을 자기 힘과 정력으로 했고, 주님은 그 일과 아무 관계가 없으셨다. 우리가 물을 것은 활동이나 결과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아는가, 주님이 나를 아시는가”다. 끝으로 하나님은 입술의 고백이나 열심, 제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순종을 원하신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사무엘의 말이 그 근거다. 바쁘고 성과가 있어도 자기 삶의 주도권을 쥐고 내 의견으로 성경을 지배하면, 그것이 주님께 드리는 최대의 모욕이다. 그리스도가 죽고 다시 사신 것을 참으로 믿는다면, 그분이 큰일과 작은 일, 일의 수단까지 모든 것에 전권을 가지신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 모형에 맞지 않는 고집은 점치는 죄처럼 가증하다. 주님 이름으로 큰일을 한 사람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 불리는 까닭은 주님이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려 했기 때문이다.

1. '안다'는 특별한 관계를 뜻한다
2. 묻을 것은 결과가 아니라 관계다

4. 내어드리지 않은 의지가 최대 모욕이다

5. 자기를 기쁘게 한 열심은 불법이다

아모스 3:2

“너희만을 알았다.” '안다'가 특별한 관계를 뜻함을 보여 준다

>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사무엘상 15:22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은 제물보다 순종을 원하신다

>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23

거역은 점치는 죄와 같다. 의지의 고집은 가증하다

>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마태복음 7:23

주님 이름으로 일한 자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로 선고된다

>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에 대한 최대의 모욕은 완전히, 전적으로 양도되지 않은 의지인 것입니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자기기만
자기 영적 상태를 실제보다 좋게 믿으며 스스로 속는 것이다.

무의식적 위선
남을 속이려는 의도 없이 남과 자신을 함께 속이는 위선이다.

구원의 확신
내가 참으로 구원받았다고 아는 것으로, 이 장에서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가 쟁점이다.

믿음주의(fideism, believism)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믿는다고 말했다'는 사실 자체를 신뢰하는 태도다.

자기 검토
말씀에 비추어 내 행위와 동기, 믿음의 진정성을 살피는 일이다.

도덕률 폐기론(반율법주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대차 균형
장부의 손실을 이익으로 맞추듯, 양심의 가책을 선행으로 상쇄하려는 태도다.

거듭남(중생)
하나님이 사람 안에 새 생명을 주셔서 속사람이 새로 태어나는 일이다.

• 점검 질문

💬 적용과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주님의 경고는 정통적이고 열심 있는 '많은 사람'의 자기기만을 향한다.
- 무의식적 위선은 자기기만의 원인을 알고 말씀으로 자신을 검토하면 막을 수 있다.
- 원인은 고백만 믿는 확신, 자기 검토의 거부, 활동으로 사는 보람, 선행으로 맞추는 균형, 실생활에서 성경을 따르지 않는 태도다.
- 주님은 우리의 결과나 제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순종을 원하신다.
- 주님 이름으로 한 큰일도 자기를 기쁘게 하려 한 것이면 '불법'이 된다.

빛다방 학습 노트 · 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베드로서원, 문창수·안광현 옮김)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